

본 자료는 5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28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5. 25 [목]	담당부서	서비스산업분석실
담당자	김승민 연구원 044-287-3013		

커넥티드카 시장 2019년 112조원 성장가능성 높아

-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고도의 안전·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자동차로 모바일서비스의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
-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산으로 IT 서비스, 콘텐츠, 보험·금융, 공공·기타 등의 분야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
- 커넥티드카 시장 2019년 112조 성장가능성 높아
-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재검토 및 관련 산업 육성 필요

최근 커넥티드카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자동차와 IT기업 뿐 아니라 서비스 기업들의 커넥티드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실시간 네비게이션, 버스정보제공 등 이미 상용화된 기술은 물론, 앞으로 자동차에 적용될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자동차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25일(목) 발표한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확산과 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커넥티드카 관련 시장 규모가 112조원까지 성장할 정도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실시간 네비게이션, 원격 차량 제어 및 관리, 위험 경고 및 사고시 긴급 구호 서비스에서 발전하여 운전자 성향을 기반으로 한 보험서비스, 스마트교통 서비스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상용화될 기술은 앞으로도 무한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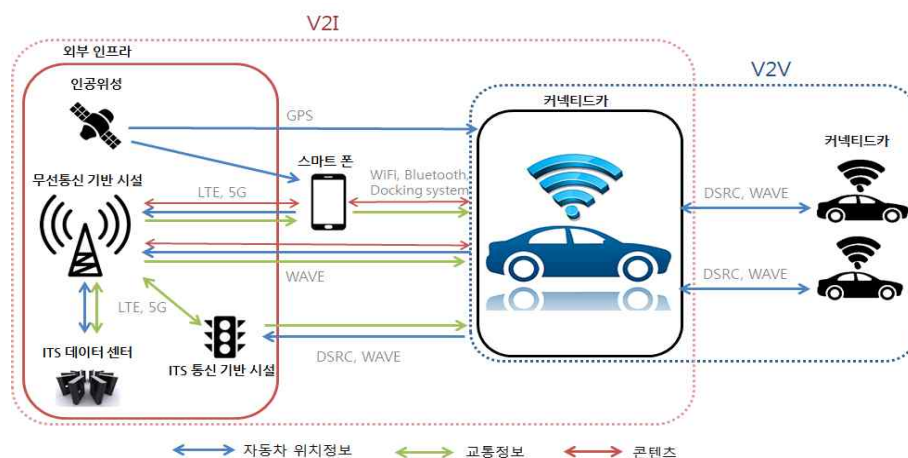
보고서는 과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 하드웨어 기술보다 소프트웨어 표준의 중요성이 더 커진 바와 같이 커넥티드카 시장도 기술 표준 경쟁력이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IT기업이 자동차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계층별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승민 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맞게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산을 저해하는 자동차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완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활성화를 위해 유관 서비스기업의 창업 지원 및 산업 관련 법·제도 정비 주문했다.

□ 커넥티드카는 고도의 안전·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로 기존의 모바일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디바이스로 부상

- 커넥티드카는 이동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인터넷에 연결한 자동차로 자동차와 유·무선 통신기반 인프라가 핵심 구성요소
- 모바일서비스의 영역이 자동차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모바일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등장

<그림> 커넥티드카 서비스 개념도



□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산으로 기존의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커넥티드카의 등장으로 기존의 모바일서비스 업체는 플랫폼을 자동차로 확장하게 되며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체들은 사물인터넷 융합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

<표>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주요 활용 기술

업종	키워드	구현 서비스 사례	세부 관련 기술
IT 서비스	텔레매틱스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네비게이션, 자동차 사고, 공사구역 등 교통 돌발 상황 정보 서비스, 사고 시 긴급 구호 서비스 등	차량정보 제공 통신 인프라, 교통 관련 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
콘텐츠	인포테인먼트	날씨, 차량주변정보 등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운전행태 기반 일정관리 및 통지 서비스, 차량 내 음성 인식을 통한 모바일 오피스, 원격 자동차 진단 및 자가 수리 등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운전 지원 단말 시스템, 운전자 음성 인식 시스템 등
보험·금융	운전자 성향 기반 보험 서비스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기반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서비스 등	자동차 운행 기록 장치(OBD), 자동차 운행정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공공·기타	스마트교통 서비스	통행료, 주차비 등 자동 지불 서비스, 교통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노선 효율화 등	스마트톨링 시스템, 교통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 차량 내 IT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자동차 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구매 결정 요인으로 부상

○ 통신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보급되면서 차량 주변 IT서비스 관련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커넥티드카 시장 진출을 위해 IT기업이 자동차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계층별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활발히 참여

○ 국내외 IT 및 서비스기업은 커넥티드카 시장 진출을 위해 자동차기업과 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양상은 기술계층별로 다양

<표> 주요 IT 기업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개발 동향

주요 기업명	개발 사항
아마존	• QNX와 협력하여 음성인식 엔진 '알렉사'를 커넥티드카 플랫폼인 SYNC에 탑재하여 CES2016에 발표
AT&T	• AT&T는 가정 관리 시스템인 디지털 라이프(Digital Life)와 커넥티드카 플랫폼인 드라이브(Drive)를 병합한 'AT&T 디지털 라이프' 스마트폰 앱을 출시
버라이즌	• 2015년 음성인식 기기와 OBD로 구성된 '험(Mum)' 출시, 서비스 이용료는 14.99달러이며 사고시 비상센터에 연결, 차량 점검 서비스, 주차위치 추적 등의 서비스 제공
알리바바	• 상하이자동차와 협력하여 'YunOS'를 개발, 2016년 SUV 차량 'RX5'에 탑재. 음성인식, 차량 상태 진단 및 수리 예약, 주차위치 예약, 휴대폰으로 운전 시동 등의 기능을 구현 • 아우디와 협력하여 고해상도의 건물을 표현한 3D 지도와 교통 데이터 기술을 개발
네이버	•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와 협력하여 그린카 이용자에게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 뮤직,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SKT	• MWC2016에서 테블릿을 차량에 연결하여 차 안에서 교통 상황과 날씨 등 정보를 얻고 후방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T2C(Tablet to Car) 서비스 솔루션 발표
오렌지 크리스탈	• 자동차 견인 및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인 '원더카' 앱 출시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참조, 산업연구원 작성

○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폐쇄적인 기술 개발 방식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혁신 생태계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기술 표준화 전략도 중요

○ 자동차기업이 IT·통신기업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여 차량에 적용하거나 모바일서비스기업이 자동차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모바일서비스, 모바일플랫폼, 임베디드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기술계층별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양상이 상이

- 차량용 통신 인프라에 대한 표준은 각 국가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보다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

□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산을 저해하는 자동차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완화 필요

- 커넥티드카 등장에 따라 국가별 환경에 적합한 도로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제 제정을 추진 중
- 미래부에서는 커넥티드카를 포함한 스마트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 및 배분, 도로교통법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안전 기준 마련 검토

□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비즈니스모델 창출 활성화를 위해 유관 서비스기업의 창업 지원 및 산업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 커넥티드카 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기대
-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 및 IT 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

붙임 :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확산과 발전 전략”